

## 中國의 史志書目に 대하여

—六史藝文·經籍志의 分類 및 編目體裁 比較를 중심으로—

姜 順 愛\*

### 목 차

I. 序論	1. 漢書藝文志
II. 史志書目の 形成背景	2. 隋書經籍志
1. 劉歆의 七略	3. 舊唐書經籍志
2. 正史의 編撰	4. 新唐書藝文志
1) 史記	5. 宋史藝文志
2) 漢書	6. 明史藝文志
III. 史志書目の 分類 및 編目體裁	IV. 結論

## I. 序 論

東洋人들은 古來로 부터 각 나라마다 時代와 역조별로 古今의 文獻을 體系있게 編撰 記述하여 그 나라 古有의 學術·文化的 척도를 가늠하는 書目을 작성하여 왔다.

그중 中國은 前漢末 劉向과 劉歆 父子가 秘府에 所藏된 古典을 校勘하여 類別로 體系있게 엮은 七略別錄이 編撰된 이후 目錄의 發展을 加速化하였다. 각 歷朝마다 編撰된 書目은 史志書目을 비롯한 官藏目錄, 家藏目錄, 專科書目, 著述書目, 版刻書目, 禁燬書目등 실로 다양하다. 이들 여러 書目중 史志書目은 劉歆의 七略을 刪하여 이루어진 漢書藝文志를 시점으로 發展되는데, 中國 正史인 二十五史內에 六史藝文·經籍志가 들어있다.

이들 六史藝文·經籍志에 들어있는 史志書目은 七分法과 四部分類法에 기초하

\* 成均館大學校 文獻情報學科 講師

여 작성되었기때문에 그 分類史의 發展과도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漢書藝文志가 유실된 七略의 분류체제를 參考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書誌道具라던 隋書經籍志는 四部分類法의 체계가 확립된 대표적인 書目으로 든다.

이들 書目은 또한 후대 이들 書目에 의하여 歷朝別로 學問의 起源과 變遷 및 學術의 發展, 典籍의 存佚 考證, 書籍의 眞僞 辨別, 書籍의 名稱, 著者, 卷秩등을 參考하여 傳本, 雕鏤, 校勘등을 연구하는데 그 기본적인 書誌道具가 되어왔다. 이는 오늘날의 書目이 서적의 主題範圍와 書誌事項을 檢索하는데 重要한 機能을 하는데 비해, 時代別 文獻의 檢索은 물론 中國 古文獻의 學術과 文化를 가늠하는 尺度가 되는점에서 더욱더 重要한 價値를 지닌다 하겠다.

이와같이 이들 史志書目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研究가 국내에서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史志書目的 形成 背景을 먼저 살펴보고 二十五史에 실린 六史藝文·經籍志의 分類 및 編目體裁를 비교하여 이들 서목이 中國 및 東洋 體系書誌學上에서 차지하는 位相을 定立하고자 한다.

## II. 史志書目的 形成 背景

史志書目的 始源은 漢書藝文志인데 漢書藝文志가 나오기까지는 劉歆의 七略과 正史 編撰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劉歆의 七略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漢書藝文志에 의해 그 원형을 알 수 있다. 또한 歷史에 藝文志가 編入되는 것은 司馬遷의 史記 編撰體裁에 의해 影響을 받아 이루어진 漢書부터 이다. 이장에서는 그 形成背景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劉歆의 七略 및 史記 와 漢書의 편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劉歆의 七略

東洋에서 文獻을 하나하나 校勘하고 그에 대한 解題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主題別로 나누어 目錄을 작성한 것은 劉歆의 七略이 처음이다. 前漢末

成帝때에 秦始皇의 焚書坑儒이후 古典이 점차 散亡되자 謁者 陳農으로 하여금 天下의 遺書를 구하도록 하고 主題別로 각 冊의 校勘을 命하였다. 光祿大夫 劉向에게 經典, 諸子, 詩賦를, 步兵校尉 任宏에게 兵書를, 太史令 尹咸에게 數術을, 太醫監 李柱國에게 方技를 分掌하게하고, 劉向은 한 책씩 校訂이 끝나면 그 篇目を 적고 그 旨意를 撮錄하여 上奏하였다.<sup>1)</sup> 이것이 劉向의 敍錄이며 그 여러 敍錄을 토대로 편집한 것이 別錄이다.<sup>2)</sup> 劉向이 죽은 후 그의 아들 歆이 그 사업을 이어 받아 모든 책의 旨要를 總括하여 七略을 만들었으니 그 主題別 類目은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東洋 최고의 類別目錄이며 七分法 分類의 創始가 되기도 한다. 그 類別 내용에 대해서는 湮沒되어 자세히 알 수 없고 현전 최고의 漢書 藝文志에 의해 上考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漢書 藝文志에는 七略의 輯略이 빠져있어 各書의 설명은 생략된 셈이다. 七略이 칠권이던 것을 한권으로 縮約하였으니 간단히 언급하면 七略의 뼈대만을 보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劉歆의 七略이 漢書 藝文志라는 書目に 담겨 후대에 分類 및 編目的 이론적 體系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許世瑛이 『中國目錄學史』에서 밝힌 義例의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자한다.<sup>3)</sup>

첫째, 學術의 性質(性格)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즉 서적을 六藝, 諸子, 詩賦, 兵書, 數術, 方技의 六類로 나누고 이 六類의 類目은 다시 몇가지의 小類로 나누었다.

六藝略：易, 書, 詩, 禮, 樂, 春秋, 論語, 孝經, 小學(9종의 小類)

諸子略：儒, 道, 陰陽,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10종의 小類)

詩賦略：屈賦(屈原等), 陸賦(陸賈等), 孫賦(孫卿等), 雜賦, 歌詩(5種の 小類)

兵書略：兵權謀, 兵形勢, 兵陰陽, 兵技巧(4種の 小類)

1) 班固, 漢書藝文志.(香港, 太平書局, 1963): 2.

阮孝緒, 七錄序：道宣, 廣弘明集, 卷3 (東京, 大正一切刊行會, 昭和 2(1927)). 影印本：109. 魏徵等, 隋書經籍志, 總序.

2) 阮孝緒, 七錄, 序.

3) 許世瑛, 中國目錄學史.(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 66( 1977)): 21-22.

數術略：天文，曆數，五行，蓍龜，雜占，形法（6種의 小類）

方技略：醫經，經方，房中，神仙（4種의 小類）

둘째, 同類의 서적은 대개 時代의 先後로 順序를 삼았다. 예를 들면 雜家의 경우, 비록 孔甲盤孟가 皇帝의 史가 아닌듯 하지만 篇首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時代의 順序로 배열하였는데 가장 끝에 漢代의 책을 두었다.

셋째, 책이 적어서 하나의 類目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성격이 유사한 類目에 附入하였다. 예를들면, 春秋뒤에 歷史書를 附入하고있는 점이다. 이때의 역사서는 國語, 國策, 世本, 奏事 등이다. 이들은 春秋와 같은 성격도 아니고 編年體 역사서도 아니다. 꼭나 秦始皇代의 焚書坑儒로 인해 사기가 거의 燒盡되어 劉歆의 校書時 史書가 매우 적으므로 그 성격이 유사한 春秋에 附入시킨 것이다.

넷째, 學術의 성격이 서로 같은 것은 思想의 派別이나 體裁의 相異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들면, 賦는 三類로 나누었는데 屈原等 20家를 一類로하였고, 陸賈등 21家를 一類로 하였으며, 孫卿等 25家를 一類로하였다. 이들은 三家가 思想도 다르고 體裁도 달라서 세개의 小類로 나누어 詩賦略에 넣었다. 雜賦와 歌詩도 體裁가 같지 않아서 서로 나누어 詩賦略에 넣었다.

다섯째, 하나의 책이 두가지 類目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중복해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兵書略의 兵技巧에 墨子가 들어 있는데 墨家에도 墨子書가 들어있다.

## 2. 正史의 編撰

### 1) 史記

史記는 司馬遷에 의해 이루어진 중국 최고의 紀傳體 通史로 正史의 鼻祖이며 二十五史 體裁의 嚆矢이다. 司馬遷의 史記가 中國歷史에서 획기적인 선을 긋는 중요한 歷史書로 완성되기까지는 이를 저술하게된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史記列傳 卷70 太史公의 自序를 참조해보면 司馬遷의 선조는 周時代부터 역사를 편찬하는 太史의 職에 있었고 司馬遷 역시 후에 太史의 職에 올랐다. 특히 그의 先親인 司馬談은 孔子가 春秋를 저술한 이후 史書가 方絕된데다가 漢나라가 창건된 이후 明君 忠臣에 대해 史書에 대해 기술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를 그의 아들인 司馬遷에게 유지로 남기고 있다.

司馬遷은 이 유지를 받들어 史記를 편찬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sup>4)</sup> 둘째, 史馬遷은 학문의 방법상에 있어서 十歲에 이미 古文을 통하고 二十歲에 中國 全土를 游歷한 경험을 바탕으로<sup>5)</sup> 太史의 職에 올라 국가도서관의 모든장서는 물론이고 先親인 司馬談의 遺稿 및 수집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史記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의 羅列이 아니라 孔子의 筆法을 본받아 嚴正한 史體에 준하여 기록을 하고 근거한 사실의 典據를 분명히 밝혔다.

셋째, 司馬遷은 그의 나이 47세에 漢의 將帥 李陵이 匈奴에게 투항하자, 이 사건에 대해 李陵을 변호하다가 武帝의 노여움을 사서 腐刑을 당하고 말았다. 몸은 훼손되어 쓸모가 없었으나 發憤心轉하여 사기저술에 온갖 열정을 쏟아 부었다.<sup>6)</sup>

넷째, 司馬遷은 자신이 史記를 저술하는 뜻은 바로 孔子의 뒤를 잇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周公이 죽은 후 오백년에 孔子가 탄생하였고 孔子가 죽은 후 자신의 시대가 또한 오백년이라 하여<sup>7)</sup> 사기 저술의 목적은 孔子가 저술한 春秋의 대의를 받들어 역사편찬의 뜻을 엄정히 하였다 하겠다.

이러한 몇가지 배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司馬遷의 史記는 軒輳시대부터 시작하여 西漢 武帝시대 까지 2,610년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本紀 12권, 表 10권, 書 8권, 世家 30권, 列傳 70권 도합 130권의 권질로 완성되었다. 이 중 本紀는 역대 帝王들의 本紀로 五帝本紀, 夏本紀, 殷本紀, 周本紀, 秦本紀, 始皇本紀, 項羽本紀, 高祖本紀, 呂后本紀, 孝文本紀, 孝景本紀, 孝武本紀 등의 12 본기로 되어 있다. 表 10은 周譜에서 모방한 것으로 三代世表, 十二帝侯年表, 六國年表, 秦楚之祭月表, 漢興이래 諸侯年表, 高祖功臣侯年表, 惠景間侯者年表, 建元이래 侯者年表, 王子侯者年表, 漢興이래 將相名臣年表 등 10表이다. 書는 文物制度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되, 同類事를 1권으로 하여 禮書, 樂書, 律書, 天官書, 封禪書, 河渠書, 平準書

4) 司馬遷, 史記, 列傳, 卷 70 太史公自序,

『汝復爲太史 則續吾祖矣……余死汝必爲太史 爲太史無忘吾所欲論著矣 且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此孝之大者……余爲太史而弗論載 廢天下之史文 余甚懼焉 汝其念哉 遷俯首流涕曰 小子不敏 請悉論先人所次舊聞 弗敢闕。』

5) 班固, 漢書, 列傳, 卷32, 司馬遷傳,

『遷生龍門 耕牧河山之陽 年十世則誦古文 二十而南游江淮 上會稽探禹穴 窺九疑 浮沅湘 北涉汶泗 講業齊魯之都 觀夫子遺風…… 過梁楚以歸。』

6) 司馬遷, 史記, 列傳, 卷70, 太史公自序,

7) 上揭書 參照

이다. 世家는 국가에 공이 있는 諸侯 또는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편년체로 엮은 것으로 형식은 本紀와 같으나 天子를 本紀로 하고 諸侯는 차별을 두는 의미에서 世家라 하였다. 吳太伯, 齊太公 등 30세가로 되어 있다. 列傳은 伯夷, 管晏, 老子, 蘇秦 등 70 열전으로 되어 있다. 끝에 太史公 自序가 붙어 있다.

## 2) 漢書

漢書는 史記에 이어 이루어진 중국 최초의 正史體 斷代史이다. 漢書는 漢高祖부터 시작하여 王莽의 주살까지 12世 230年間의 역사기록이다. 이 책의 저자인 班固는 扶風人으로 東漢의 史學家이며 文學家로 班彪의 아들이다. 班彪는 史籍에 전심하고 後傳 수십편을 지어 史記의 후속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책은 완성되지도 못한채 죽었다. 班固가 그 사업을 이어 완성하려 하였지만 被告로 獄死하였다. 班固가 옥사하자 다시 그의 누이 班昭가 和帝의 조서를 받들어 완성하니 20여년이 걸려 이루어진 셈이다.

漢書는 이와같이 몇사람의 노력으로 편찬되었으나 전체적인 것은 班固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本紀 12권, 表 8권, 志 10권, 列傳 70권 총 100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체재는 書를 고쳐 志로 하고 世家를 넣지 않은 것 이외에는 史記를 모방하였다. 이 중 志에 藝文志가 들어있어 최초의 史志書目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章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다.

### Ⅲ. 史志書目的 分類 및 編目體裁

中國 紀傳體 正史 漢書에 처음으로 藝文志가 신설되면서 史志書目이 시작되는데 그 分類 및 編目體裁는 劉歆의 七略에 근거하고 있다. 劉歆의 七略이 散佚되고 전해지지 않아 그 分類 및 編目體裁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점에서도 매우 소중하다 하겠다. 이 漢書藝文志 이후 中國의 25史 正史중 六史에 藝文志와 經籍志가 삽입되어 史志書目이 발전되는데, 漢書藝文志, 隋書經籍志,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 宋史藝文志, 明史藝文志가 그 요목이다.

漢書藝文志의 七分法이후 각 藝文志들은 四部法의 分類法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중 隋書經籍志는 四部分類法이 확립된 중요한 분류표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들 각 藝文志와 經籍志의 分類 및 編目 體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漢書藝文志

漢書藝文志는 劉歆의 七略을 刪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 10志에 실린 서목이다.

班固는 劉歆의 七略 7권을 刪要하여 漢書藝文志 1권으로 하였는데 七略중 輯略은 序로 改稱하고 七略에 실린 각 책마다 簡명한 提要가 있던 것을 모두 刪去하고 설명이 필요할 때는 小注로 처리하였다.<sup>8)</sup> 漢書藝文志 部序나 類序중에서 “劉向”이라 한것은 七略 중 “臣向”이라 했던 것을 班固가 고쳐서 인용한 것이다. 또 類目間에도 서로 增省과 出入이 있었다. 增은 원래 著錄이 없거나 불완전한 것을 增入한 것이다 예를들면, 六藝略중 小學類에 揚雄과 杜林 二家 三篇을 증입하였다 (揚雄의 『蒼頡訓纂』 1篇, 杜林的 『蒼頡訓纂』 1篇, 『蒼頡故』 1篇). 省은 班固가 七略중의 중복된 저록의 도서를 刪去한 것이다. 예를 들면, 六藝略은 樂類에서 淮南, 劉向 등 『琴頌』 7篇을 刪去하고 春秋類에서 『太史公』 4篇을 刪去하여 도합 11편을 刪去하였다. 出入은 班固가 七略의 도서중 그 類目에 귀속시키기가 부적당하다고 여긴 일부의 책을 한 주제에서 끄집어내어 다른 주제로 改入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兵書略의 兵權謀에서 『司馬法』 155篇을 提出하여 六藝略의 禮類로 改入시키는 것이다.<sup>9)</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漢書藝文志는 七略의 절록이지만, 七略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는 그 기본적인 골격이나마 갖추고 있어 현전 최고의 완성된 목록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漢書藝文志의 分類 및 編目體裁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分類

漢書藝文志의 分類法은 앞서 七略에서 그 이론적 측면을 언급했듯이, 學術의性

8) 淮南道訓 二篇의 漢書藝文志 小注 『淮南王安聘明易者九人 號九師說』는 七略의 『易傳淮南九師道訓者 淮南王安所造也』에서 취한 것이다.

9) 呂紹虞, 中國目錄學史稿.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 75(1986)): 41-42.

質, 學派의 相異, 文章의 體裁등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여 七略의 輯略만을 제외하고 六藝, 諸子, 詩賦, 兵書, 數術, 方技의 六分法으로 나누고 그 類目은 38개로 하였다.

우선 六藝略은 孔子가 刪訂한 易, 書, 詩, 禮, 樂, 春秋의 六經<sup>10)</sup>을 비롯하여 論語, 孝經, 小學의 9종이며 春秋끝에는 역사를 附入시켰다. 六藝略은 그 명칭이 周禮에서 처음 나타나며 원래는 학문의 주제별 명칭이 아니라 禮, 樂, 射, 御, 書, 數 등 학술의 종류를 의미하였고<sup>11)</sup> 孔子가 六經을 刪訂한 이래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sup>12)</sup> 六藝之文은 樂으로 仁을, 詩로 義를, 禮로 禮를, 書로 知를, 春秋로 信을 즉 五常의 道를 배우는 五學으로 여겼으며 특히 易은 五學의 근원으로 여겼다.<sup>13)</sup>

두번째, 諸子略은 儒, 道, 陰陽,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의 10家인데, 漢書藝文志 諸子略 小序에 보면 “其可觀者 九家而已”라 하였으니 學術的 思想의 이론 분야로서 小說家는 제외시키고 있다. 諸家의 起源은 周나라가 망하고 春秋全圖時代 諸侯國에 의한 군국주의의 대두로 인해 封建社會가 붕괴 소멸되자 정부기관이 맡고있던 종래 각 분야에 있어 사무처리의 이론과 기술이 민간에 까지 퍼지고 이것이 점차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면, 道家는 史官에서, 法家는 理官(司法機關)에서 연유한것을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一家의 흥기는 대부분 특수한 역사적인 전통과 지리적인 환경을 갖고 또한 특수한 직업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적인 학파로 儒, 道, 法, 陰陽家를 들기도 하였다.<sup>14)</sup> 어쨌든 諸子略은 群雄이 割據하던 春秋全圖時代에 各 諸侯國마다 선호하는 바가 달라서 九家의 學術사상이 湧출하였다. 各 사상마다 主唱하는 바는 달

10) 司馬遷, 史記, 卷 130, 太史公自序, 第 70,

『夫儒者以六藝爲法 六藝經傳以千萬數 累世不能通其學 當年不能究其禮』

司馬遷, 史記, 卷 47, 孔子世家, 第17,

『孔子 以詩書禮樂教弟子 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二人』

11) 周禮, 地官條,

『以鄉三物教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智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

12) 注 9) 參照

13) 班固, 漢書藝文志, 第 10, 六藝略 小序,

『六藝之文 樂以和神 仁之表也 詩以正言 義之用也 禮之明體 明者著見 故無訓也 書以廣聽 知之術也 春秋之斷事 信之符也 五者蓋五常之道 相須而備 而易爲之原。』

14)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上. (서울, 宇鐘社, 1989) : 82-85.



랐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六經의 支流에 불과한 것으로 六經을 공부한 연후에 九家の 사상을 관찰해야만 그 장단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sup>15)</sup> 주제전개에 있어서도 六藝略 다음에 諸子略을 둔 이유가 여기서 분명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詩賦略은 屈賦, 陸賦, 孫賦, 雜賦, 歌詩 의 5종이다. 詩賦略은 詩經 및 諸家の 문장과는 달리 독특한 문학형식을 갖추었다. 詩經이 四言詩인데 반해 字數에 구애받지 않는 散文體 형식으로 孫卿과 屈原이 그 대가를 이루었다. 이들 두사람은 참소를 당해 나라를 근심하고 風體로 賦를 지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宋玉, 唐勒, 枚乘, 司馬相如, 楊子雲 등이 이분야에서 대가가 되었다. 이들을 분류할 때 賦의 체재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屈原아래 宋玉, 唐勒, 枚乘, 司馬相如의 賦를 모으고 楊子雲(雄)은 陸賈 다음에 두었다. 雜賦는 孝武帝때에 樂府를 두어 채집한 歌謠가 주류를 이루었고, 歌詩는 哀樂에서 감흥을 일으켜 지은 詩歌 형태로 모아진 것들이다. 이 詩賦略의 分類는 文體의 발전사에 비중을 두고 분류의 초점을 맞춘 듯 하다.

넷째, 兵書略은 대개 司馬의 職에서 시작이 되었다. 司馬는 周時代 軍事를 맡아 보는 벼슬로서 漢代에는 三公의 하나였다. 漢나라에서는 張良과 韓信이 兵法을 序次하니 모두 182家였다. 그 요점을 刪取하여 35家를 이루었고, 孝成帝때 任宏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 兵書를 4종으로 편차하니 兵태謨, 兵形勢, 兵陰陽, 兵技巧이다.

다섯째, 數術略은 明堂(天子가 정사를 보는 궁전)에서 羲和(堯임금때 天文과 曆象을 맡은 羲氏와 和氏)가 점을 치던 관직 즉 史卜에서 유래되었다. 天文, 曆譜, 五行, 蒼龜, 雜占, 形法의 6종으로 나누었다.

여섯째, 方技略은 漢의 倉公이 醫經, 經方, 房中, 神仙의 네주제로 체계화 하였는데, 醫經은 漢醫의 기초학이고 經方은 漢醫의 응용학이다. 이에비해 房中은 道家의 神仙思想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법이고 神仙은 道家의 神仙思想으로 不老長生에 치중하는 것이다.

위의 여섯 주제에서 나타나는 분류의 특징을 종합하면,

1. 漢書藝文志의 분류는 七略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되 輯略을 생략하고 六分法으로 나누었다.

15) 班固, 漢書藝文志, 小序.

2. 六藝略은 9종으로 나누고, 다만 春秋類뒤에 歷史類를 부입시켰다. 역사서는 12家 500餘篇으로 그다지 적은 양도 아니었는데 굳이 春秋뒤에 넣은 것은 이들 자료를 春秋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한군데 모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3. 六藝略이 학문의 기본과목인 데 비해 諸子略은 학술사상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요목은 九家가 중심이었으며 小說家は 부수적으로 넣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六經을 공부한 연후에 九家의 사상을 관찰해야만 그 長短을 알 수 있다고 하여 六藝略다음에 주제 전개를 한 것이다.

4. 詩賦略은 당시 문체의 발전사에 비중을 두고 賦의 대가였던 屈原, 陸賈, 孫卿의 賦와 樂府에서 채집한 歌謠중심의 雜賦, 一般詩歌 형태로 모은 歌詩로 나누었다.

5. 兵書略은 任宏이 당시의 병서를 戰術, 攻擊과 奇襲, 兵法에 적용된 占術, 軍事訓練 등으로 체계화하여 4종으로 나누었다.

6. 數術略은 天體觀測과 占術에 관한 것으로 6종으로 나누었다. 이 수술략의 세분 주제내용은 諸子略의 陰陽家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 굳이 분리해서 학술사상에 넣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7. 方技略은 漢의 倉石이 漢醫學과 道家의 건강비법을 체계화하여 4종으로 나누었다.

8. 주제전개상 七略에 비해 일부항목의 增省과 出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七略에서 그 주제가 산만하게 처리된 부분을 손질하여 주제간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 2) 編目體裁

漢書藝文志의 분류 고찰에 이어 편목의 체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序 (總序라고도 함)를 맨 앞에 두고 漢나라의 藏書 變遷과 校書의 源流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大序 다음에 書名, 著作者, 篇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술 방법에 있어서는 書名, 著作者, 篇數의 순으로 한 경우가 있고, 著作者가 앞에 오고 書名과 篇數가 나중에 오는 경우가 있으며, 書名과 篇數는 있되 著作者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著作者뒤에 부가어를 달고 篇數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셋째, 小注를 붙이고 있는데, 著作者, 解釋書의 내용, 책의 來歷, 篇目的 多寡, 책의 存佚, 注解者, 著作의 時代 와 眞僞등을 다루고 있다.

넷째, 같은 類目內에서는 시대를 선후로 하여 순서를 삼았고, 한 類目이 끝난 뒤에는 總券數를 쓰고 小序를 붙였다. 小序의 내용은 學術의 源流와 是非得失에 관한 論定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여섯가지 大主題 뒤에는 總序 ( 약간 긴 小序 )를 붙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각 主題의 概略과 類目的 成立 및 批評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六略의 總計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編目體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우선 大序, 小序, 總序등의 序文을 두어 藏書의 概況과 變遷, 校書의 源流, 學術의 源流, 主題의 概略, 類目的 成立 등을 기록하였다. 각 주제의 책들은 書名, 著作者, 篇數를 기록하되, 書名과 時代順으로 체계화하였고 간혹 著作者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으며, 내용에 따라 주석이 필요한 부분은 小注로 처리하였다. 類目과 主題뒤에는 총권수를 적어 數的인 범주도 확실히 하였다 하겠다.

## 2. 隋書經籍志

隋書經籍志는 魏徵등이 편찬한 隋書중 十志의 하나로서 唐太宗 貞觀15년 (641)에 이루어진 4권의 목록으로 중국에서는 漢書藝文志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史志書目이며 四部分類法의 체계를 세운 分類書目이기도 하다.

이 서목은 漢書藝文志는 물론 五代 藏書目錄 및 隋代에서 내려온 장서를 근거로 하여 14,466 部 89,666 卷을 수록하고 있는데, 후에 五代 藏書目錄이 모두 없어져서 唐以前의 古籍 流傳의 狀況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隋書經籍志는 司馬遷의 史記, 班固의 漢書藝文志, 王檢의 七志와 阮孝緒의 七錄을 참고하여<sup>16)</sup> 그 分類 및 編目體裁를 확립하였다. 말하자면 그때까지의 모든 七分法과 四分法의 分類法 및 著錄內容을 참고하여 그 分類 및 編目

16) 魏徵 等, 隋書經籍志, 總序,

『…遠覽馬史班書 近觀王阮志錄 挹其風流體制 其浮雜鄙俚 離其疏遠 合其近密 約文緒義 凡五十五篇 各列本條之下 以備經籍志…』

體裁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分類

分類에 있어서 隋書經籍志는 그 體系를 經, 史, 子, 集의 四部로 나누고 附錄에 道, 佛 兩部 15類로 나누어 실제로는 6部 55類에 해당한다. (總 6,520部 56,881卷) 세분하면, 經部 10類, 史部 13類, 子部 14類, 集部 3類, 附錄 道經 4類, 佛經 11類이다. 隋書經籍志는 大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劉歆의 七略으로 부터 시작되는 모든 七分法과 荀勗의 中經新簿이후의 모든 四部法을 참고하였으나 部類를 잘 살펴보면 중국의 昌彼得 教授도 『中國目錄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sup>17)</sup> 실제로는 阮孝緒의 七錄의 내용에서 거의 채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部類에 대해서는 部別로 阮孝緒의 七錄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經部

隋書經籍志	七錄(經典錄 內篇 一)
易類 ←—————	易部
書類 ←—————	尙書部
詩類 ←—————	詩部
禮類 ←—————	禮部
樂類 ←—————	樂部
春秋類 ←—————	春秋部
孝經類 ←—————	論語部
論語類 ←—————	孝經部
緯讖類 ←—————	小學部
小學類 ←—————	

七錄은 經典錄이 9部인데 비해 隋書經籍志의 經部는 10類이다. 이는 원래 七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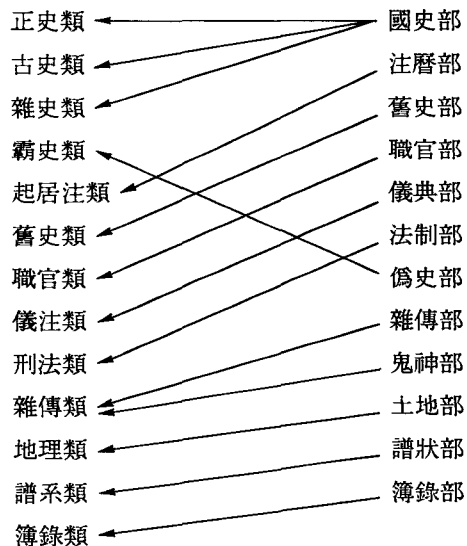
17) 昌彼得, 潘美月 共著, 中國目錄學.(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5(1986)): 137.

의 術技錄에 있던 緯讖部를 끌어다가 經部 小學類 앞에 두어 緯讖類로 하여 經에 붙이고, 經典錄을 經部로 하였으며 孝經을 論語 앞에 두었다.

史部

隋書經籍志

七錄(紀傳錄 內篇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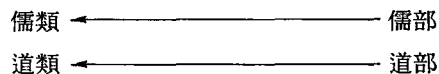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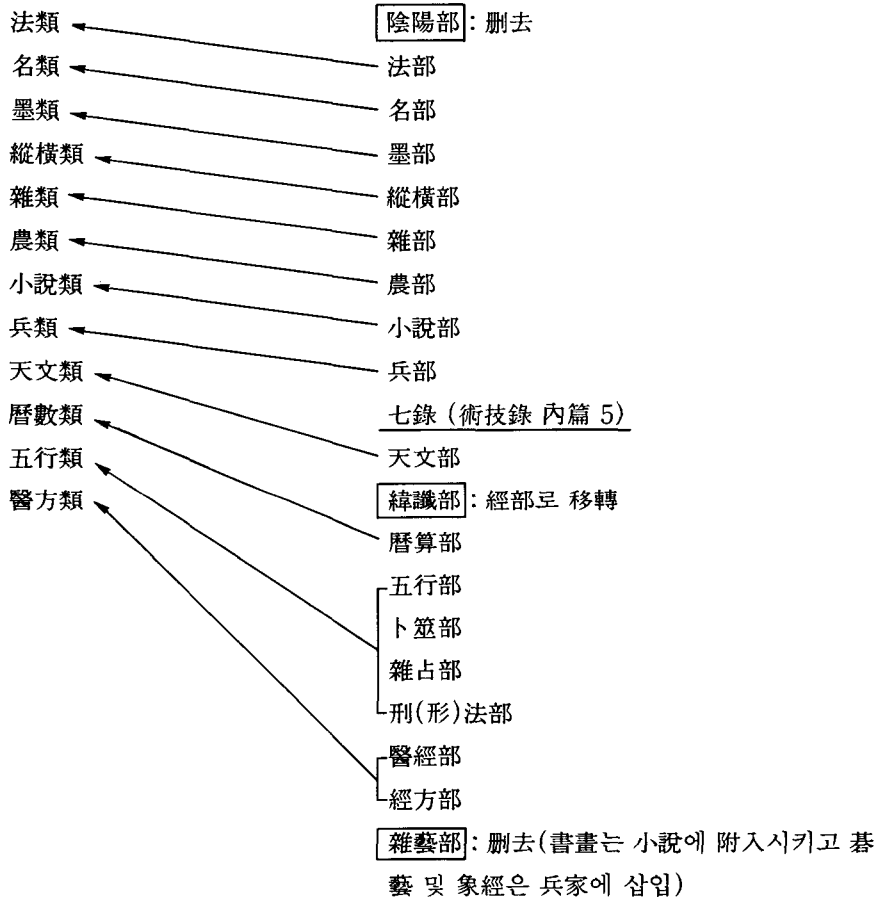
七錄의 紀傳錄은 12部인데 隋書經籍志의 史部는 13類이다. 隋書經籍志는 國史部를 體裁에 따라 正史, 古史(編年), 雜史의 3類로 하고 雜傳, 鬼神 2部를 합하여 雜傳類로 하였다. 나머지는 그대로 거의 답습하였는데 그중 명칭을 약간씩 고친 것은 儀典을 儀注, 法制를 刑法, 土地를 地理, 譜狀을 譜系, 僞史를 霸史로 고치고 雜史類뒤에 넣었다.

子部

隋書經籍志

七錄(子兵錄 內篇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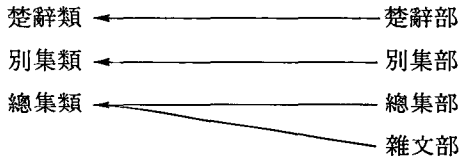
七錄의 子兵錄은 11部이고 術技錄은 10部로 도합 21部인데, 隋書經籍志는 이 두 주제를 합쳐 14類로 조정하여 子部로 삼았다. 術技錄의 緯讖部는 經部에서 본 바와 같이 緯讖類로 고쳐 經部에 넣었다. 七錄의 陰陽部는 저서가 1종 1책이었는데, 隋代에는 그 책이 없어져서 아예 類名을 없앴다. 七錄의 術技錄은 雜藝部의 경우 그중 書畫에 관한 것은 小說에 附入시키고 碁藝 및 象經에 관한 것은 兵家에 삽입시킨 다음 雜藝部 자체를 刪去하였다. 또 卜筮, 雜占, 刑(形)法 3類를 五行類에 병입시키고 醫經과 經方을 합쳐 醫方類로 하여 전체를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子

部는 諸子, 技藝 (兵, 天文, 曆數, 醫方 등), 과거에 근거한 術數 (五行), 異文을 수습한 小說 등을 합하여 이루어졌다. 성격이 類似하지 않은 類目들을 모아 하나의 주제를 이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후대의 비판이 잇달았다.

集部

隋書經籍志

七錄(文集錄 內篇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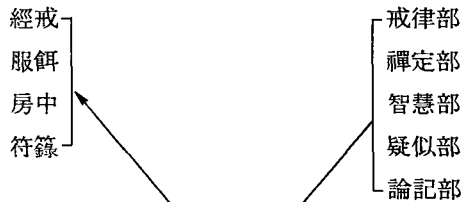
七錄의 文集錄은 4部인데 隋書經籍志는 集部에서 雜文部를 總集에 넣어 3類로 하였다.

附錄

道經

隋書經籍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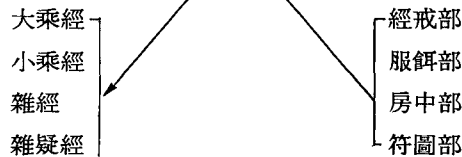
七錄(佛法錄 外篇一)



佛經

隋書經籍志

七錄(仙道錄 外篇二)



大乘律  
 小乘律  
 雜律  
 大乘論  
 小乘論  
 雜論  
 記

道經과 佛經을 方外의 宗教로 취급하여 附錄에 두는 것은 王儉의 七志에서 시작되어 分類에 적용되었다. 七志에서 附錄에 道經과 佛經을 두었다가 阮孝緒의 七錄에서 佛法錄과 仙道錄을 두고 類目を 세분하였다. 七錄의 仙道錄 4部는 隋書經籍志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道經을 經戒와 服餌로 나누고 여기에 七略의 方技略에 속해 있던 房中과 神仙을 끌어다가 房中과 符籙에 넣은 것이다. 七錄의 佛法錄은 5部인데 비해 隋書經籍志의 佛經은 11類이다. 佛敎는 後漢 明帝때에 수입되어 魏晉南北朝 時代로 부터 隋唐을 거치는 동안 傳敎 및 譯經事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七錄의 佛法錄은 5部에 불과했는데, 隋書經籍志의 佛經은 大藏經의 經典分類 체계에 의거해 經, 律, 論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敎派로 나눈 것이다. 隋書經籍志는 道經과 佛經을 四部分類뒤에 附錄으로 넣긴 했지만 書名은 열거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 分類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첫째, 隋書經籍志의 분류는 중국 고유의 七分法과 四分法을 참고로 하여 四部法의 체계를 확립하였지만 실체는 六分法이며, 특히 阮孝緒의 七錄 분류체계를 가장 많이 답습하고 있다.

둘째, 經部는 10類인데 七錄의 9部에 비하여 1類가 많다. 그 이유는 七錄의 術技錄에 있던 緯讖部를 끌어다가 經部 小學類 앞에 두었고 經典錄을 經部로 하였으며 孝經을 論語 앞에 두었다.

셋째, 史部는 七錄의 紀傳錄이 12部인데 비해 13類이다. 七錄의 國史部를 체재에 따라 正史, 古史, 雜史의 3類로 하고, 雜傳, 鬼神의 2部를 합하여 雜傳類로 하였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다. 명칭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儀典을 儀法,



法制를 刑法, 土地를 地理, 譜狀을 譜系, 僞史를 霸史로 하였다.

넷째, 子部는 七錄의 子兵錄 11부와 術技錄 10부를 합친 21부를 조정하여 14類로 하였다. 術技錄의 緯讖部가 經部로 移轉하였고 陰陽部和 雜藝部の 두 類目은 刪去하였다. 卜筮, 雜占, 刑(形)法の 3부를 五行類에 병합시키고 醫經과 經方의 2부를 합쳐 醫方類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여러 주제를 합친 이론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후대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다섯째, 集部는 七錄의 4部중 雜文部를 總集에 넣어 3類로 한 것 뿐, 나머지 체재는 같다.

여섯째, 附錄에 들어간 道經과 佛經은 方外의 宗教로 인정하여 四部分類 外에 별도로 두었다. 道經은 七錄과 같이 4類로 하고 약간의 명칭 변경만 있었을 뿐이다. 다만 佛經은 經, 律, 論의 경론체계 아래 다시 교파로 나누어 11類로 하였다. 이와 같이 附錄은 분류의 체계는 갖추었지만 類目만 나열하고 書名은 기록하지 않았다.

## 2. 編目體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隋書經籍志는 그 분류체계에 있어서 七分法과 四分法을 참고하였지만 실제로는 七錄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編目的 체재에 있어서도 梁의 舊目錄이나 七略과 七錄을 참고한 것도 있지만 주로 漢書藝文志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隋書經籍志의 編目體裁에서 드러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卷首에 大序를 두어 역대 경적의 源流를 설명하였고 漢書藝文志의 闕失을 보충하였으며, 漢, 魏, 六朝 목록의 體例와 阮孝緒의 七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둘째, 大序 다음에 書名과 卷數를 綱으로 하여 기록하고 著作者를 注로 하였다. 이중 著作者를 注로 하지 않은 것은 集部의 경우 뿐이다. 集部에 한해서만 著作者의 姓名을 위에 쓰고 某人文集이라 하였다. 이는 漢書藝文志의 경우 전체적으로 著作者를 우선으로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또 著作者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그 時代와 관함만을 기술한 것도 漢書藝文志와 크게 다른 점이다. 漢書藝文志와 달리 隋書經籍志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책의 存亡殘缺을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면, “梁有若干卷 梁有某某書若干卷 亡”이라 한 것이 있는

데 이것은 梁代 舊目錄을 참고하여 기록은 했으나 隋代는 이미 없어진 책을 의미한다. 또 子部 道家類 著錄인 文子 12권의 注에는 “七略有九編 梁有七錄十卷 亡”이라 한 것을 보면, 七略과 七錄을 참고하여 기록은 했지만 隋代에는 이미 그 책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하나의 類目이 끝나면 總數를 기록하고 小序를 붙였다. 예를 들면, 經部 易類 뒤에 “右六十九部五百五十一卷 統計亡書合九十四部八百二十九卷”과 같이 易類의 總計를 적고 亡書는 注를 달고 있다. 小序는 대부분 漢書藝文志의 記述을 본받아서 學術의 淵源과 變遷 및 評論 優劣 得失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隋書經籍志는 또한 漢書藝文志를 모방하여 經, 史, 子, 集의 각 부 끝에 그 주제의 총권수를 적고 그 다음에 總序를 붙였다. 예를 들면, 經部 끝에는 “凡六藝略六百二十七部五千三百七十一卷 通計亡書合九百五十部七千二百九十卷”이라 하여 經部 전체의 총권수를 적고 亡書의 通計를 注로 달고 있다. 總序 역시 漢書藝文志의 체재를 답습하여 學術의 大勢와 是非得失을 가리고 있다.

다섯째, 附錄의 道佛 兩部에는 각각 總序가 있고 後序가 있다. 總序에는 道佛의 淵源과 發展 및 重要經典 등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불경은 經에 관한 것을 자세히 실고 있다. 後序에는 道佛이 方外의 宗教라 뒤에 실는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

體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大序, 小序, 總序, 後序등을 두어서 大序는 역대 경적의 源流와 漢代藏書의 闕失補完 및 書目的 발전과정을 기술하였고, 小序에서는 거의 그대로 漢書藝文志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總序에서는 學術의 大勢와 是非得失을 論定하였다. 後序에는 道佛이 方外의 宗教여서 附錄에 실는 이유를 밝혔다. 각 주제의 책들은 書名, 卷數, 著作者를 기록하되, 著作者의 부가사항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時代와 관함만을 적었다. 총권수를 적고 나서는 끝에 그 책의 存亡殘缺을 밝혀 隋代에 없어진 책의 총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道佛은 부록에 넣었으나 서명을 실지 않았다.

### 3. 舊唐書經籍志

舊唐書經籍志는 劉煦등이 奉勅撰한 十志중의 하나가 경적지에 해당한다. 이 經

籍志의 편찬경위를 보면, 唐 開元3年(715)에 褚無量에 의해 古籍이 정비되고 同7年(719)에 公卿士庶의 집에 있는 책을 빌려다가 官이 그것을 베껴 乾元殿 東廊에 두었다. 開元9年(721) 11월에 殷踐猷, 王愜, 違述, 余欽, 毋災, 劉彥眞, 王灣, 劉仲 등이 內部的 藏書를 重修하여 『群書四部錄』 200권을 완성하였다.<sup>18)</sup> 이 책은 여러 사람이 관여되었으나 馬懷素가 일차 관장하다가 죽고 元行沖이 續修하여 완성한 것이다.<sup>19)</sup> 著錄은 新唐志序에 의거하면 唐代著作 이 53,915권이라 하였으니 그 정도에 가까운 수치일 것이다. 분류체계는 隋書經籍志의 체계를 따랐고 몇가지 명칭 변경만 있었던 것을 舊唐書經籍志의 序文에 의해 알 수 있지만, 群書四部錄은 宋 이후 失傳되었다.<sup>20)</sup> 이에 이어 毋災는 群書四部錄의 문제점을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였다. 즉 事有未周, 理有未弘, 體有未通, 例有所虧, 事實未安이 그 요체이다.<sup>21)</sup> 이에 따라 毋災는 群書四部錄을 刪略 增補하여 四部的 著作 45家 3,060部 51,852卷의 책을 『古今書錄』 40卷으로 하고, 釋氏 經律論疏와 道家 經戒符籙 2,500餘部 9500餘卷에 대해 모두 翻譯 名氏를 갖추어 『開元內外經錄』 10卷으로 작성하였다.<sup>22)</sup> 이들 群書四部錄과 古今書錄 및 開元內外經錄의 관계는 別錄에

18) 劉煦等, 舊唐書經籍志, 總序,

『開元三年 左散騎常侍褚無量 馬懷素侍宴 言及經籍 玄宗曰 內庫皆是 太宗高宗先代舊書 常令官人主掌 所有殘缺 未遺補綴 篇卷錯亂 難於檢閱 卿試爲朕整比之 至七年 詔公卿士庶之家 所有異言 官借繕寫 及四部書成 上令百官入乾元殿東廊觀之 無不駭其廣 九年十一月 殷踐猷王愜違述余欽毋災劉彥眞王灣劉仲等重修 成群書四部錄二百卷 右散騎常侍元行沖奏上之』

19) 上揭書, 元行沖傳,

『元行沖 河南人 開元七年 拜太子賓客 弘文館學士 先是秘書監馬懷素集學者 續王儉今書七志 散騎常侍褚無量於麗正殿校寫四部書 事未就而懷素無量卒 詔行沖總代其職 於是行沖表請通撰古今書目 名爲群書四錄 歲餘書成 奏上 上嘉之 ……』

20) 昌皮得, 潘美月 共著, 中國目錄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5(1986)): 143-144.

21) 劉煦等, 舊唐書經籍志, 總序,

『……舊志所修 誠惟此義 然體有未愜 追怨良深 于時秘書省經書 實多亡闕 諸司填籍 不暇討論 此則事有未周一也 其後周覽人間 頗覩秘文 新集記貞觀之前 永徽以來不敢 近書採長安之上 新龍已來未錄 此則理有未弘二也 書閣不備 事復未周 或未詳名氏 或未知不伍 此則體有未通三也 書多闕目 空張第數 既無篇題 實乖標榜 此則例有所虧四也 所用書序 咸取魏文貞 所分書類 皆據隋經籍志 理有未允 體有不通 此則事實未安五也』

22) 上揭書

『……凡四部之錄四十五家 都管三千六十部 五萬一千八百五十二卷 成書錄四十卷 其外有釋氏經律論疏 道家經戒符籙 凡二千五百餘部 九千五百餘卷 亦具翻譯名氏 序述指歸 又勤成目錄十卷 名曰開元內外經錄』

있어서의 四庫總目提要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한다. 결국 天寶의 亂과 黃巢의 亂을 거치면서도 古今書錄 및 內外經錄은 그 亂을 피하여 後唐까지 존재해 있었으므로 훗날 舊唐書經籍志의 편찬에 저본이 되었다.

이와같이, 舊唐書經籍志는 古今書錄을 低本으로 그 분류체계는 隋書經籍志에 의거하고 약간의 增益改易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分類와 編目體裁를 살펴 隋書經籍志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分類

舊唐書經籍志는 隋書經籍志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일부 명칭의 개정만이 있었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隋書經籍志에서 舊唐書經籍志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가장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은 종래 方外의 종교로 인정하여 四部分類法 이외의 附錄으로 처리하였던 道經과 佛經을 子部로 끌어들이므로서, 漢書藝文志로 부터 隋書經籍志에 이르는 六分法의 체계를 탈피하여 四分法의 체계를 정립한 점이라 하겠다.

우선 경부를 보면,

#### 舊唐書經籍志

易類 1	孝經類 7
書類 2	論語類 8
詩類 3	讖緯類 9
禮類 4	經解類 10
樂類 5	詁訓類 11
春秋類 6	小學類 12

#### 隋書經籍志

易類	春秋類
書類	孝經類
詩類	論語類
禮類	緯讖類
樂類	小學類

隋書經籍志의 經部는 10類인데 비해 舊唐書經籍志는 12類이다. 舊唐書經籍志는 隋書經籍志에 비해 經解와 詁訓 2類를 더두고 緯讖을 讖緯로 바꾼 것 뿐이다. 經解와 詁訓은 隋書經籍志의 경우 論語類 끝에 붙였던 것을 독립시킨 것이다. 그러나 주제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類目名을 열거해 놓고, 실제 전개에 있어서는 孝經과 論語, 讖緯와 經解, 詁訓과 小學이 함께 전개되어 있다. 그 이유인 즉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첫머리에 類目名을 나누어 놓고 두개의 類目を 부분적으로 묶어 전개한 것은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誥訓과 小學은 같은 성격의 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孝經과 論語, 讖緯와 經解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을 함께 묶은 것이라 분류 성격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史部를 보면,

舊唐書經籍志

正史類 1    故事類 6    目錄類 11  
 編年類 2    職官類 7    譜牒類 12  
 僞史類 3    雜傳類 8    地理類 13  
 雜史類 4    儀注類 9  
 紀居注類 5    刑法類 10

隋書經籍志

正史    舊事    地理  
 古史    職官    譜系  
 雜史    儀注    簿錄  
 霸史    刑法  
 起居注    雜傳

隋書經籍志와 舊唐書經籍志의 史部는 똑같이 13類이다. 舊唐書經籍志의 史部는 위의 經部에서 나타난 例와 같이 첫머리에 類目を 설정해 놓고 실제로는 編年과 僞史를 묶어 전개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12類에 해당한다. 類目の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보면, 古史가 編年, 霸史가 僞史, 譜系가 譜牒, 簿錄이 目錄으로 바뀌었다. 그 중 僞史는 七錄의 舊名稱이다.

子部를 보면,

舊唐書經籍志

儒家類 1  
 道家類 2  
 法家類 3  
 名家類 4  
 墨家類 5  
 縱橫家類 6  
 雜家類 7  
 農家類 8

隋書經籍志

儒家類                    \* 附錄  
 道家類                    道經  
 法家類                    經戒 服餌 房中 符籙  
 名家類                    佛經  
 墨家類                    大乘經 小乘經 雜經  
 縱橫家類                雜疑經  
 雜家類                    大乘律 小乘律 雜律  
 農家類                    大乘論 小乘論 雜論

小說家類 9	小說家類	記
天文類 10	兵類	
曆算類 11	天文類	
兵書類 12	曆數類	
五行類 13	五行類	
雜藝術類 14	醫方類	
事類(類書類)15		
經脈類 16		
醫術類 17		

舊唐書經籍志의 子部는 17類로 隋書經籍志에 비해 3類가 더 많다. 우선 道家부터 보면 학술사상으로서의 道家和 神仙思想에 의거한 道經 그리고 佛教思想인 釋經의 세영역을 합쳐 놓은 것이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주제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隋書經籍志부터 비롯되었지만 이 부분의 오류는 심하기가 더 이룰데없다. 雜家類에서 類書를 끄집어내어 事類를 만들었는데 이는 주제의 성격을 옳게 가름해낸 부분의 하나이다. 雜藝術類를 새로 설정하여 投壺와 博奕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醫方은 經脈과 醫術로 나누어 漢醫의 基本學과 應用學을 구분하였다.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보면, 兵類가 兵書類, 曆數類가 易算類로 바뀌었다. 이는 七錄의 舊名稱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集部를 보면,

<u>舊唐書經籍志</u>	<u>隋書經籍志</u>
楚詞類 1	楚辭類
別集類 2	別集類
總集類 3	總集類

集部는 楚辭類를 楚詞類로 바꾼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이 세 類目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분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四部分類法의 기본틀을 처음으로 완성하여 분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

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類目の 전개에 있어서 과감하고 발전적인 지향을 하지 못하고 隋書經籍志의 폐단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말았다.

둘째, 經部는 經解와 詁訓의 두 類目を 증가하고 緯讖을 讖緯로 고쳤다.

셋째, 史部는 명칭의 변경만 있었는데, 古史를 編年, 霸史를 僞史, 譜系를 譜牒, 符籙을 目錄으로 바꾸었다.

넷째, 子部는 隋書經籍志보다 3類가 더 많아 17類이다. 道家에는 종래의 순수한 철학 이외에 道經과 佛經을 합쳤고 雜家에서 類書를 독립시켜 事類를 설정하였다. 또 雜藝術類를 새로 신설하여 投壺와 博奕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醫方은 經脈과 醫術로 세분되었다. 명칭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는 兵類가 兵書類, 曆類가 易算類로 바뀌었다.

다섯째, 集部는 楚辭類를 楚詞類로 바꾼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

## 2) 編目體裁

舊唐書經籍志의 編目體裁는 분류와 마찬가지로 隋書經籍志의 체재를 답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隋書經籍志에 비해 매우 간략화 되어 있다.

舊唐書經籍志에 나타나는 書目的 體裁를 살펴보면,

첫째, 권머리에 大序 (舊唐書經籍志에서는 總序로 표시했지만 논문 앞부분에서 大序로 표시했으므로 전체적인 통일을 위해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를 두어 開元年間(713~741)과 그 이후의 藏書 整備 및 書目 編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群書四部錄과 古今書錄 및 開元內外經錄의 편찬과정, 이들 서목과 舊唐書經籍志와의 關係 등을 밝히고 있다.

둘째, 대주제는 甲部 經錄, 乙部 史錄, 丙部 子錄, 丁部 集錄의 네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아래서는 첫머리에 總計 및 類目名을 적었다. 각 주제의 책들은 書名과 卷數를 먼저 적고 著作者를 나중에 적었다.

셋째, 각 類目이 끝난 뒤에는 小序를 생략하고 總計만을 적었다. 이 중 類目間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전개된 부분이 있는데, 孝經類와 論語類, 讖緯類와 經解類, 詁訓類와 小學類, 編年類와 僞史類가 그것이다.

넷째, 각 주제 뒤에는 별도로 총계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集部는 類目を 나누지 않고 書名을 나열했기 때문에 맨 끝에 총수를 기록하고 後序를 붙였다. 後序

에서는 秦시대의 焚書부터 開元時代까지의 文獻史를 적고 있다. 편목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하면, 隋書經籍志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다. 이는 古今書錄 40권이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그 節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大序와 後序를 두어 大序는 開元年間과 그 이후의 장서 정비 및 서목 편찬에 대해 기술하였고 後序는 秦의 焚書부터 開元까지의 문헌사를 적고 있다. 漢書藝文志와 隋書經籍志에 있던 小序와 總序를 생략하였다. 각 주제의 책은 書名과 卷數를 앞에 著作者를 뒤에 기록하였다. 分類目的의 뒤에는 반드시 총계를 적는데 類目間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은 곳도 부분적으로 있었으며 集部는 각 類目的 책들을 일괄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 4. 新唐書藝文志

宋 嘉祐年間(1056~1063)에 歐陽脩, 宋祁 등이 奉勅撰한 新唐書 13志 중의 하나가 藝文志에 해당한다. 新唐書藝文志는 舊唐書經籍志에 의거하여 편집하였고 舊唐書經籍志에 빠진 唐 玄宗 이후의 저작을 추가하였다. 舊唐書經籍志의 저작 53,915권에 추가저작 28,469권을 합쳐 82,384권을 수록하였다. 新唐書藝文志에는 八萬餘卷의 책이 수록됨으로써 唐代 개인의 저서와 官府에 소장되었던 서적은 거의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追加 著錄은 어떤 서목에 근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分類 및 編目體裁는 舊唐書經籍志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舊唐書經籍志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分類

新唐書藝文志의 分類는 舊唐書經籍志에 의거하여 몇가지 類目を 修訂하는 차원에서 머물렀다. 각 類目的 修訂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舊唐書經籍志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經部에 있어서는 舊唐書經籍志가 12類로 나눈데 비해 11類로 1類가 적다. 詁訓 1類를 줄여 小學에 넣었다. 舊唐書經籍志의 分類 전개는 新唐書藝文志에 와서 좀더 명료해졌다. 孝經類와 論語類, 讖緯類와 經解類, 詁訓類와 小學類는 舊唐書經籍志의 경우 묶어서 열거했던 것인데, 新唐書藝文志에 와서는 앞의 두 그룹은



주제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고 마지막의 詁訓類와 小學類는 성격이 같아서 합쳤다.

둘째, 史部는 13類이다. 類目數는 舊唐書經籍志와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다. 舊唐書經籍志에서는 編年類와 僞史類의 두 類目を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두 그룹을 묶어서 전개하고 있다. 新唐書藝文志에서는 類目の 열거는 물론 실제 내용에서도 주제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起居注類는 起居注와 제왕의 實錄 및 詔令 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起居注의 類目を 살펴 보면, 첫머리에 起居注에 관한 자료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實錄群을 열거하기 전에 “凡實錄二十八部三百四十五卷 劉知幾以下不著錄四百五十七卷”이라는 일단의 문장을 넣고, 詔令의 자료군 앞에도 “凡詔令一家十一部三百五卷 失姓名十家 溫彥博以下不著錄十一家二百二十二卷”이라는 일단의 문장을 넣어 細目の 주제군도 나누고 있다. 舊唐書經籍志에서는 이러 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데 비해 新唐書藝文志에서는 細目까지도 주제군의 경계를 해주어 각 주제간의 한계를 더욱 명료하고 세밀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子部는 17類로 舊唐書經籍志와 그 類目數가 같다. 子部에서는 명칭의 변경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 事類를 類書로, 經脈을 明堂經脈으로 개정하였다. 이 중 類書의 명칭은 事類에 비해 주제의 성격상 더 합당하다 하겠다.

넷째, 集部에 있어서는 新·舊唐志가 다같이 3類이다. 舊唐書經籍志는 類目만 제시해 놓고 실제 내용에서는 나누지를 않았다. 이에 비해 新唐書藝文志에서는 각 類目を 細別化 하였다. 新唐書藝文志에서 또하나 특기할 것은 總集類 內에 그 성격이 다른 詩文評 및 史評類를 추려내어 總集類 끝에 附入하고 부입하는 앞부분에 “凡文史類四家四部十八卷 劉子玄以下不著錄二十二家二十三部百七十九卷”이라는 일단의 문장을 넣어 文史類의 주제군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건대, 新唐書藝文志에서는 舊唐書經籍志에 비해 괄목할만한 分類體系上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舊唐書經籍志에서 類目の 전개상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정하여 개념이 같은 것은 합치고(詁訓類와 小學類), 개념이 다른 것들은 분명하게 나누었다(孝經類와 論語類, 讖緯類와 經解類, 編年類와 僞史類). 또 史部의 起居注類에서는 起居注, 實錄, 詔令으로 細目の 개념을 誘導하였으며, 集部에서는 詩文評 및 史評類를 추려내어 總集類 끝에 文史類로 附入시켜 새로운 주제

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 2) 編目體裁

新唐書藝文志는 分類에서와 마찬가지로 編目體裁에 있어서도 舊唐書經籍志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도 역시 舊唐書經籍志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新唐書藝文志는 舊唐書經籍志와 같이 권머리에 大序를 두어 秦時代 이후의 문헌의 盛衰를 기록하고 있다. 舊唐書經籍志에 비하면 내용이 훨씬 소략하다.

둘째, 大主題는 甲部 經錄, 乙部 史錄, 丙部 子錄, 丁部 集錄의 四部로 나누고 小主題 아래서는 먼저 類目과 總計를 적고 있다. 小主題의 책들은 著作者를 書名위에 적고 다음에 권수를 기록하였다. 著作者의 時代 및 관함은 기술하지 않고 增錄書의 경우는 저작자의 小傳을 附注하고 있다.

셋째, 각 類目の 끝에는 小序를 생략하고 책의 總計만을 적고 있다. 그 형식을 보면 “右易類七十六家八十八部六百六十五卷 失姓名一家 李鼎祚以下不著錄十一家三百二十九卷”이라 되어있는데, 여기서 “不著錄”이라 한것은 다른 서목에는 실리지 않고 新唐書藝文志에만 새롭게 수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大主題의 뒤에는 책의 總計와 總序를 모두 생략하였고 맨 끝에 붙이던 後序도 역시 생략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舊唐書經籍志 이후 간략해진 편목체재의 형식은 더욱 간략해졌다. 序文이라는 성격은 卷首에 두는 것 이외에는 모두 없었고 서명위에 붙이던 저작자에 대한 것도 저작자의 이름 이외에는 모두 생략하였다. 마치 오늘날의 간략한 서목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主題, 著作者, 書名, 卷數, 總計 등의 서지적인 사항만을 기록하였다 하겠다.

## 5. 宋史藝文志

宋史藝文志는 元 順帝 至正5年 (1345)에 脫脫 등이 奉勅撰한 紀傳體 宋代史 496 권중에서 32志 가운데 8권이 藝文志에 해당한다. 宋史藝文志는 四部國史藝文志에 의해 그 구성이 짜여졌다. 北宋 이전의 책은 세개의 서목속에 실려 있다. 그 첫째가 呂夷簡 등이 착수한 太祖, 太宗, 眞宗의 三朝國史藝文志로 이의 低本은 眞宗 咸平3年(1000) 朱昂, 杜鎬 등이 편찬한 館閣書目이다. 둘째, 王珪 등이 착수한 仁宗,

英宗의 兩朝國史藝文志로 이의 저본은 仁宗 慶曆元年(1041)에 王堯臣, 歐陽脩 등이 편찬한 崇文總目이다. 셋째, 李燾 등이 편찬한 神宗, 哲宗, 徽宗, 欽宗의 四朝國史藝文志로 이의 저본은 徽宗 政和 7年(1117)에 孫覿, 倪濤 등이 편찬한 秘書總目이다. 北宋의 세 國史藝文志는 서로 중복하여 저록되지 않았고 총권수가 6,705部 73,877卷이다. 南宋의 책은 淳祐年間(1241~1252)에 편찬한 高宗, 孝宗, 光宗, 寧宗의 中興四朝國史藝文志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中興四朝國史藝文志라 함은 곧 孝宗 淳熙5年(1178)에 陳騏 등이 편찬한 中興館閣書目 및 寧宗 嘉定13年(1220)에 張攀 등이 편찬한 續書目を 일컫는다.<sup>23)</sup> 이와 같이 여러 서목을 참고하여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遺漏가 심하고 편차가 草率하며 重複顛倒된 것이 많은데, 南宋이 특히 더 심하다. 寧宗 이후의 저작은 실리지 않아 宋史藝文志를 가리켜 여러 史志書目중의 叢勝라 하였다.<sup>24)</sup> 宋史藝文志의 分類와 編目體裁는 新唐書藝文志를 참조하여 增減을 두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分類

宋史藝文志의 分類는 新唐書藝文志와 비교하여 약간의 이동이 있을 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서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에 있어서는 易, 書, 詩, 禮, 樂, 春秋, 孝經, 論語, 經解, 小學의 10類이다. 新唐書藝文志에 비해 1類가 줄었다. 讖緯類가 刪訂되었는데, 이때에는 경전의 讖緯類가 모두 亡佚되고 易經의 讖緯만 남아 있었으므로 그것을 易類중에 부입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이다.

둘째, 史部에 있어서는 正史, 編年, 別史, 史鈔, 故事, 職官, 傳記, 儀注, 刑法, 目錄, 譜牒, 地理, 霸史의 13종이다. 新唐書藝文志와 비교해 보면, 宋史藝文志는 起居注類가 없고 대신에 史鈔類가 생겼다. 新唐書藝文志에 있어서 起居注類는 起居注, 實錄, 詔令으로 屬位가 세분되어 있던 것인데, 宋史藝文志에서는 屬位도 세분하지 않고 編年類에 넣었다. 史鈔類는 新唐書藝文志의 경우 책이 많지 않아 雜史에 并入되었던 것인데, 이때와서 별도로 독립시켰다. 類名이 변경된 것을 보면, 僞

23) 呂紹虞, 中國目錄學史稿.(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 75 (1986)): 90-91.

24) 紀昀等, 四庫全書總目提要.(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2 (1983))

『宋史藝文志 訛謬顛倒 瑕隙百出 於諸史志中 最爲叢勝』

史類霸史類, 雜史類가 別史類, 雜傳記類가 傳記類로 바뀌었다. 세째, 子部에 있어서는 儒家, 道家(釋氏 및 神仙附),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農家, 雜家, 小說家, 天文, 五行, 著龜類, 曆算, 兵書, 雜藝術, 類事, 醫書로 17類이다. 宋史藝文志와 新唐書藝文志의 類目數는 같고 名稱上의 차이만 있다. 宋史藝文志에서는 明堂經脈類와 醫術類를 합쳐 醫書類로 하였고 著龜類를 독립 시켜 五行類와 분리하였다. 명칭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類書를 類事로 바꾸었다. 네째, 集部는 楚辭, 別集, 總集, 文史類의 4종이다. 新唐書藝文志에서 總集類 뒤에 附入하였던 文史類를 하나의 類門으로 독립시켰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經部는 讖緯類의 서적들이 亡佚되어 刪訂되었다. 史部는 起居注類가 編年類에 합속되었고 史鈔類가 독립되었으며 僞史가 霸史로 雜史가 別史로 雜傳記가 傳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子部는 明堂經脈類와 醫術類를 합속하여 醫書로 하였고 著龜類를 五行類에서 독립시켰으며 類書가 類事로 명칭이 바뀌었다. 集部는 總集類에 附入되었던 文史類를 하나의 類門으로 독립시켰다. 宋史藝文志는 新唐書藝文志에 비해서 類目이 더 짜임새있게 조정되었고, 類目名의 변경중 類書를 類事로 雜傳記를 傳記로 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듯 하다.

## 2) 編目體裁

宋史藝文志의 編目體裁는 분류와 마찬가지로 新唐書藝文志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이도 역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宋史藝文志는 新唐書藝文志와 같이 卷首에 大序를 두었는데, 그 내용은 宋史藝文志가 撰修되기까지 각 國史藝文志의 편찬과정 및 宋史藝文志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大主題는 經, 史, 子, 集의 四部로 나누고 小主題 아래서는 類目的 종류와 총계를 적고 있다. 각 類目的 책들은 書名, 卷數, 著作者를 기록하였는데 이 세가지의 次序 중 저작자를 대부분 앞에 기록하고 있다. 著作者에 注를 달아야 하는 경우는 書名과 卷數 뒤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각 類目뒤에는 小序를 생략하고 총계만을 적고 있다. 그 형식은 新唐書藝文志에서와 같이 책의 총권수 뒤에 “不著錄”의 권수를 밝히고 있다.

넷째, 大主題뒤의 總序를 생략하는 대신에 책의 총계를 적었고 맨 끝에 붙이던

後序는 생략되었다.

종합하면, 宋史藝文志의 編目體裁는 新唐書藝文志보다도 더 간략화 되었다. 序文形式은 大序만을 두어 宋史藝文志와 관련된 내용만을 집약하여 실었고 小序, 總序, 後序는 생략하였다. 각 主題의 책들은 書名, 卷數, 著作者를 적고 著作者를 우선으로 하되, 주석이 필요한 경우는 書名과 卷數 뒤에 두었다. 총계에는 “不著錄”의 수도 밝혔다. 宋史藝文志가 新唐書藝文志에 비하여 그 형식이 달라진 것은 類目的 경계가 더욱 분명하여진 점, 大主題뒤에 總計를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 6. 明史藝文志

明史藝文志는 乾隆4年(1739) 7월에 張廷玉 등이 편찬한 明史 336卷중 卷96-99(4卷)가 이에 해당한다. 이 藝文志의 편찬계획은 두 派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張廷玉이 倪燦과 黃虞稷을 중심으로 하여 隋書經籍志의 체재를 모방하여 遼, 金, 元, 明의 저작을 合修하여 四朝藝文志로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尤侗을 중심으로 明代의 藏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후자의 계획이 적용되었다.<sup>25)</sup> 그 진행 과정을 보면, 明史藝文志의 序文은 약간의 개정이 있었지만 서목의 部卷數는 康熙18年(1679)에 王鴻緒가 편찬한 明史稿藝文志와 같게 하였다. 王鴻緒가 편찬한 明史稿藝文志는 黃虞稷의 千頃堂書目に 의거하고 있는데, 千頃堂書目は 宋史藝文志에 빠진 咸淳(1265-1274)以後의 책과 遼, 金, 元 三史에 藝文志가 없어서 실리지 못한 책들을 각 類目的 著述뒤에 宋末 및 遼 金 元 三代之 書目的 형식으로 해서 附錄으로 실었다. 明代의 著述은 소장한 곳에 나타나는데로 차례를 갖추어 열거하였고 서목의 卷數뒤에 著作者의 약력을 곁하여 注를 달고 私家의 著錄은 자세하게 기록하였다.<sup>26)</sup> 明史稿藝文志는 이를 藍本으로 하고 千頃堂書目中에서 각 類目뒤에 부록으로 실려있던 宋末 및 遼 金 元 三代之 書目은 刪去하였다.

明代의 서적 중에서도 권질을 상고할 수 없는 것과 저작자가 없는 것은 刪削하였고 部類를 改移하거나 修改하였다.<sup>27)</sup> 또 淸의 康熙帝가 明 末期 저작에 대해 忌

25) 昌皮得, 潘美月 共著, 中國目錄學.(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5(1986)): 213-214.

26) 李日剛, 中國目錄學.(臺北, 明文書局, 民國 72(1983)): 201-202.

27) 呂紹虞, 中國目錄學史稿.(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 75(1986)): 155-156.

諱가 심했던 것은 삭제된것도 적지 않다. 이런 과정으로 인하여 明史稿藝文志에 실린 것은 洪武초기(1368) 부터 崇禎 말기(1643)까지 276年間の 明代 各家의 著述에 제한되고 있다.<sup>28)</sup> 明史藝文志는 위의 明史稿藝文志를 그대로 襲用하여 이루어졌고, 分類 및 編目體裁는 宋史藝文志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分類

明史藝文志의 分類는 四部 三十五類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각 주제별로 나누어 類目을 들고 宋史藝文志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는 易, 書, 詩, 禮, 樂, 春秋, 孝經, 諸經, 四書, 小學의 10類이다. 宋史藝文志와 類目の 數와는 같지만 名稱의 차이가 있다. 明史藝文志에는 論語類 대신에 四書類, 經解類 대신에 諸經類가 있다. 四書라는 이름은 南宋 朱熹의 四書集註가 편찬된 이후 부터 사용되어 類目名으로 채택된 듯하다. 經解대신에 諸經이라 한것은 명칭에 문제가 있는 듯 한데, 諸經에 들어 있는 서적은 모두 經典의 해석서로 經解라 해야 옳을 것 같다.

둘째, 史部는 正史(編年在內), 雜史, 史鈔, 故事, 職官, 儀注, 刑法, 傳記, 地理, 譜牒의 10類이다. 宋史藝文志에 비해 세개의 類目이 줄었는데, 編年을 正史에 합치고 目錄類와 霸史類를 刪削하였다. 編年類를 正史類에 합친 것은 역사를 體裁에 따라 분류하려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類目名에 있어서는 別史를 雜史로 고쳤다.

셋째, 子部는 儒家, 雜家, 農家, 小說家, 兵書, 天文, 曆數, 五行, 藝術(醫書附), 類書, 道家, 釋家의 12類이다. 宋史藝文志가 17類인데 비해 5類가 줄었다. 法, 名, 墨, 縱橫家의 4類는 책이 적어 雜家로 합속하였다. 蓍龜類는 五行에 병합하고 醫書類는 藝術類에 병합하였다. 醫書를 藝術類에 부합시킨 것은 分類의 體裁에 적합하지 않다. 道家類를 독립하여 道經을 수록하고 釋家類에는 佛經을 수록 하였다. 歷代藝文志 중 道家와 佛經은 隋書經籍志에서 附錄으로 넣었다가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 宋史藝文志에서는 모두 子部 道家類에 넣었다가 이때 와서 처음으로 독립시켜 수록함으로써 합당한 체계를 갖추었다 하겠다. 類目名이 달라진 것은 曆

28) 王鴻緒等, 明史藝文志, 序文.

算이 曆數로, 類事가 類書로, 雜藝術類가 藝術類로 바뀌었다. 넷째, 集部는 別集, 總集, 文史의 3類이다. 宋史藝文志에 비해 楚辭類의 한 류목을 없앴는데, 集部에서 가장 오랜 자리를 지키던 문학형식이 문예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자리를 마감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經部는 論語類를 四書類로, 經解類를 諸經類로 대체하였는데, 이 중 諸經類는 그 명칭을 經解類로 하는 것이 자료의 성격상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史部는 編年類를 正史類에 합치고 目錄類와 霸史類를 刪削하였는데, 이 중 編年類를 正史類에 넣은 것은 역사체재의 분류상 적합하지 않다. 別史는 雜史로 명칭을 바꾸었다. 子部는 類目の 合屬과 分離가 이루어졌다. 合屬의 경우는 뚜렷한 이론의 정립이 없이 필요에 따라 합쳐서 합당하지가 않고, 分離의 경우는 道家類와 釋家類를 분리하였는데, 자료의 성격과 분류의 이론상 적합하다 하겠다. 일부 명칭의 변경도 있었다. 集部는 楚辭類를 없애고 3類로 하였는데 문학의 중요한 형식이 없어지고 개인저작, 종합저작, 비평 등으로 나누어 졌다 하겠다.

## 2) 編目體裁

明史藝文志의 編目體裁는 宋史藝文志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卷首에는 大序를 두었는데 明代 館閣의 장서관리와 各家의 저술을 모아 藝文志를 작성하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둘째, 대주제는 經, 史, 子, 集으로 나누고 小主題 아래서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類目を 열거하였다. 類目아래의 각 책에 대해서는 書名, 卷次, 著作者를 기술하고 있는데 著作者를 우선으로하고 그 다음에 書名과 卷次를 적고 있다. 간혹 책에 대해 著作의 紹介와 그 책의 辨僞를 적은 것도 있는데<sup>29)</sup> 상세하게 기술한 편이다.

셋째, 각 類目の 뒤에는 小序가 없이 總計를 적고 대주제의 뒤에는 총계를 생략하였으며 맨 마지막의 後序 역시 생략하였다.

編目體裁의 편찬내용을 실고 있는 小序의 형식은 大序만을 두어 明代 장서관리

29) 張廷玉等, 明史藝文志, 經部, 易類, 豐坊古易世學 15卷條

『坊云家有古易 傳自遠祖豐稷 又有古書世學六卷 言得朝鮮倭國二本 合於今文 古文石經 古本魯詩世學三十六卷 亦言豐稷所傳 錢謙益謂坊僞撰也。』

와 藝文志의 편찬내용을 실고 있고 小序, 總序, 後序는 생략하였다. 각 주제의 책들은 著作者를 우선으로 하고 書名과 卷次를 다음에 적었으며 책에 따라 著作의 紹介와 辨僞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었다. 각 類目の 뒤에는 간단한 총계만을 적었고 대주제인 四部의 뒤에는 총계를 생략하였다. 宋史藝文志에 비해 달라진 것은 저작에 따라 그 紹介와 辨僞를 적은 점, 總計에 不著錄의 숫자가 별로 없는점, 대주제의 뒤에 총계가 생략된 점 등으로 요약된다.

#### IV. 結 論

中國의 史志書目에 대해서, 특히 六史藝文·經籍志의 分類 및 編目體裁의 比較를 중심으로 考察한 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史志書目的 형성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한 것은 劉歆의 七略과 正史의 편찬이다. 劉歆의 七略은 오늘날 佚失되어 전하지 않고 있지만, 漢書藝文志에 그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어 分類 및 編目的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책은 學術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되, 책이 적어서 하나의 類目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가까운 類目에 넣었고, 學術의 성격이 서로 같은 것은 思想의 派別이나 體裁의 相異에 따랐으며, 同類의 서적은 시대를 先後로 하였고 하나의 책이 두가지 주제에 들어가는것은 중복해서 분류하였다.

2. 또 하나의 중요한 몫을 한 것은 正史의 편찬인데, 司馬遷의 史記와 班固의 漢書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司馬遷의 史記는 通史로 本紀, 表, 書, 世家, 列傳의 五體裁에 의해 역사를 서술하는 始原을 세웠는데, 本紀는 역대 皇帝의 本紀이고, 表는 年表이다. 書는 文物制度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되, 同類事를 一卷으로 하였다. 世家는 국가에 공이 있는 諸侯 또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列傳은 당대의 인물 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70명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班固의 漢書는 史記에 이어 이루어진 中國 최초의 正史體 斷代史이다. 漢書의 體裁는 史記를 모방하였지만, 本紀, 表, 志, 列傳의 四體裁를 확립하였다. 史記의 書를 고쳐 志로 하고 世家와 列傳을 합쳤다. 이 志안에 藝文志가 처음으로 실려 최초의 史志書目 구실을 하게 되었다 하겠다.



3. 史志書目は 漢書藝文志, 隋書經籍志,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 宋史藝文志, 明史藝文志의 六種이다. 이들 서목의 分類 및 編目體裁 중 두드러지는 것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漢書藝文志의 分類는 劉歆의 七略을 그대로 답습하되, 輯略을 제외하고 六藝, 諸子, 詩賦, 兵書, 數術, 方技의 六分法으로 나누고 그 類目は 38개로 하였다. 七略의 分類 理論인 學術의 性格, 學派의 相異, 文章의 體裁등의 이론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주제가 중복되는 것은 刪去하였고 그 주제에 부적합한 책은 다른 주제로의 이동이 있었다. 편목의 체재는 大序, 小序, 總序를 두어 藏書의 概況과 變遷, 學術의 原流, 主題의 概略, 類目の 成立 등을 기록하였다. 각 주제의 서적은 서명, 저작자, 편수를 기록하되 서명과 시대순으로 체계화 하였고, 간혹 저작자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으며, 내용에 따라 주석이 필요한 경우는 小注로 처리 하였다. 類目과 主題뒤에는 총권수를 적어 수적인 범주를 확실히 하였다 하겠다.

2) 隋書經籍志의 분류는 종래의 七分法과 四分法을 모두 참고하여 四部法의 체계를 확립하였지만, 실제로는 六分法이며 阮孝緒의 七錄을 많이 답습하고 있다. 분류체계는 經, 史, 子, 集의 四部 40類로 나누고 附錄에 道佛 兩部 15類로 나누어 총 6部 55類이다. 漢書藝文志에 비해 經, 史, 子, 集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역사를 春秋에서 독립시켜 史部에 분류하는 단계로 발전시킨 점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子部에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주제 즉 諸子, 技藝, 術數, 小說등을 합쳐 분류의 이론적 근거가 불충분한 오류가 생기기도 하였고, 또 道經과 佛經을 方外의 종교로 치부하여 부록으로 처리하는 맹점을 남겼다. 편목체재에서는 大序, 小序, 總序, 後序를 두었고 서명위주로 체계화 하였으며 저작자사항은 時代와 官銜만을 적었다. 총권수뒤에 책의 存亡殘缺을 기록하여 隋代에 없어진 책의 총계를 알수 있게 하였다.

3) 舊唐書經籍志는 古今書錄 및 內外經錄을 低本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四部 45類이다. 처음으로 四部分類法의 기본틀을 완성하여 분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였다 하겠다. 하지만 類目の 전개에 있어서 과감하고 발전적인 지향을 하지 못하고 隋書經籍志의 폐단을 답습하는데서 머물고 말았다. 編目體裁에 있어서는 大序와 後序를 두되, 小序와 總序를 생략하였다. 서명중심으로 類目뒤에 총계를 적었는데, 類目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아서 혼선을 빚은 부분도 있다.

4) 新唐書藝文志는 舊唐書經籍志에 추가저작 28,469권을 합쳐 82,384권을 수록하고 四部 44類로 나누었다. 新唐書藝文志의 분류체제는 舊唐書經籍志에 비해 類目的 전개상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정하여 개념이 같은 것은 합치고(詁訓과 小學類) 개념이 다른 것은 나누었다.(孝經과 論語類, 讖緯와 經解類, 編年과 僞史類) 史部の 起居注類에서는 細目的 개념을 유도하였고, 集部에서는 처음으로 文史類를 설정하였다. 編目體裁는 舊唐書經籍志 이후 간략해진 編目體裁의 형식을 더욱 간략히 하였다. 序文은 권수에 두는 것 이외에는 모두 생략하였다. 主題, 著作者, 書名, 卷數, 總計등의 서지적 사항 이외에는 부수적인 것을 모두 생략하였다 하겠다.

5) 宋史藝文志는 北宋과 南宋을 합쳐 四部國史藝文志에 의거하여 편집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遺漏가 심하고 編次가 草率하여 重複轉倒된 것이 많은데 南宋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寧宗 이후의 저작은 실지 않고 있다. 분류체제는 新唐書藝文志에 비해 類目이 더 짜임새 있게 조정되었는데, 經部的 讖緯類 刪訂, 史部に 있어서 起居注類의 編年類 合屬, 史鈔類의 獨立, 子部に 있어서 明堂經脈類와 醫術類의 合屬, 蒼龜類에서 五行類의 獨立, 集部에서의 文史類의 獨立이 있었다. 類目的 변경으로는 僞史가 霸史, 雜史가 別史, 雜傳記가 傳記, 類書가 類事 등으로 바뀌었다. 編目體裁에 있어서는 序文의 경우 大序만을 두었고, 각 주제의 책은 서명, 권수, 저작자를 적되 저작자를 우선으로 하고 주석이 필요하면 서명과 권수 다음에 적었다. 總計에는 “不著錄”의 수도 밝혔다. 新唐書藝文志에 비해 달라진 것은 類目간의 境界가 분명해지고 大主題뒤에 총계를 적은 것이라 하겠다.

6) 明史藝文志는 千頃堂書目を 기본으로 하되, 明代의 藏書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하였다. 分類에 있어서는 類目的 合屬과 分離, 削除, 名稱의 變更이 있었다. 類目的 合屬은 史部和 子部에서 두드러졌는데, 뚜렷한 이론의 정립이 없이 필요에 따라 합속하여 불합리한 점이 많다. 編撰體裁가 다른 編年類와 正史類를 합친다든가, 子部に 있어서 法, 名, 墨, 縱橫家의 思想書를 雜家에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다. 類目的 分離에 있어서는 道經과 佛經의 分離가 두드러졌고 史部の 目錄類와 霸史類, 集部の 楚辭類는 삭제되었다. 명칭의 변경은 각 類目마다 몇가지씩 바뀌었다. 編目體裁는 宋史藝文志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고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著作에 따라 그책의 紹介와 辨僞를 적은 점, 總計에 “不著錄”의 통계가 별도로 잡

---

하지 않은 점, 大主題뒤에 총계가 생략된 점 등이다.

## 참 고 문 헌

- 歐陽脩, 新唐書藝文志, 新唐書, 卷 57-60 (志 47-50); 藝文 1-4.
- 紀昀等,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2 (1983)).
- 班固等, 漢書藝文志, 漢書, 卷 30 (志 10).
- 班固編, 顧實講疏, 漢書藝文志講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7).
- 班固等, 漢書, 列傳, 卷 32, 司馬遷傳.
- 傅樂成著, 辛勝夏譯, 中國通史, 上, 下. (서울, 宇鍾社, 1989).
- 司馬遷, 史記, 列傳, 卷 70, 太史公自序.
- 余嘉錫, 目錄學發微.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63 (1974)).
- 呂紹虞, 中國目錄學史稿.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 75 (1986)).
- 阮孝緒, 七錄, 序文.
- 汪辟疆, 目錄學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2 (1983)).
- 王鴻緒等, 明史藝文志, 明史, 卷 96-99 (志 72-75); 藝文 1-4.
-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0 (1981)).
- 遠東圖書公司編輯部, 中國歷代圖書大辭典. (臺北, 遠東圖書公司, 民國 45 (1956)).
- 魏徵等, 隋書經籍志, 隋書, 卷 32-35 (志 27-30); 經籍 1-4.
- 劉煦等, 舊唐書經籍志, 舊唐書, 卷 46-47 (志 26-27); 經籍, 上, 下.
- 李曰剛, 中國目錄學. (臺北, 明文書局, 民國 72 (1983)).
- 李政垠, 四部分類法의 史的 考察.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84).
- 張曼濤, 佛教目錄學述要.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民國 67 (1978)).
- 蔣伯潛, 校讐目錄學纂要. (臺北, 正中書局, 民國 58 (1969)).
- 曹慕樊, 目錄學綱要. (西南,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88).
- 昌彼得, 中國目錄學講義.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2 (1973)).
- 昌彼得, 潘美月 共著, 中國目錄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5 (1986)).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 卓用國, 中國史學史大要. (서울, 探求堂, 1989)

- 脫脫等, 宋史藝文志, 宋史, 卷 202-209 (志 155-162); 藝文 1-8.  
許世瑛, 中國目錄學史.(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 66 (1977)).  
玄英娥, 四部分類法의 分析的 研究.(서울,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7)  
胡楚生, 中國目錄學研究.(華正書局有限公司, 民國 69 (1980)).

## ABSTRACT

### On the Bibliographies of Chinese Historical Books

– Classifying and cataloguing system of six historical bibliographies –

Soon-Ae Kang\*

In china, six bibliographies of official historical books are evaluated at the most important things among the systematically-editing bibliographies. These bibliographies would be useful to study the origin of classical sciences and their development, bibliographic research of Chinese classics, bibliographic judgement on genuine books, titles, authors, volumes. They could be referred to research into graving, correcting, and existence of ancient books. therefore, these bibliographies would be applied to estimation the phase of scientif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study of these bibliographies has been not yet made in Korea. This thesis lays its importance on the background of their appearance, their classification norms, organizing system of their catalogue, and comparison between their difference.

1. Editing and compiling of Chilyak (七略) by Liu Chin (劉歆) and official histo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entering an appearance of historical book's bibliographies.

Chilyak has been lost. However, its classification and compiling system of classical books would be traced by Hansoyemunji(漢書藝文志) of which basic system is similar to Chilyak. It classified books according to their scientific characteristic. If a few books didn't have their own categories,

---

\*Instruct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y were combined by the circles parallel to the books' characteristic. With the books classified under the same scientific characteristic, they were again divided into the scientific schools or structures. It also arranged the same kinds of books according to the chronology. The some books with duplicate subjects were classified multiply by their duplicate subject.

2. Ssu-ma Chon's (司馬遷) The Historical Records(Saki, 史記) and Pan Ku's (班固) The 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 (Hanso, 漢書) has also took effects on appearance of historical books' bibliographies. Covering overall history, Saki was structured by the five parts : The basic annals(本紀), the chronological tables (表), the documents (書), the hereditary houses(世家), biographies(列傳). The basic annals dealt with kings and courts' affairs according to the chronology. The chronological tables was the records of the annals. The documents described overall the social and cultural systems. The hereditary houses recorded courts' meritorious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The biographies showed exemplars of seventy peoples selected by their social status. Pan Ku(班固)'s The 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漢書) deserved to be called the prototype for the official histories after Saki's (史記 : The Historical Records) appearance. Although it modelled on Saki, it had set up its own cataloguing system. It was organized by four parts ; the basic annals (本紀), the chronological tables (表), treatises(志), biographies (列傳). The documents in the Hanso(漢書) was converted into treatises(志). The hereditary houses and biographies were merged. For the first time, the treatise with The Yemunji could operate function for historical bibliographies.

3. There were six historical bibliographies : Hansoyemunji(漢書藝文志), Susokyongjeokji(隋書經籍志), Kudangsookyongjeokji(舊唐書經籍志), Shindang-soyemunji(新唐書藝文志), Songsayemunji(宋史藝文志), Myongsayemunji(明

史藝文志).

1) Modelling on Liu Chin's Chilyak except Chipryak(輯略), Hansoyemunji divided the characteristic of the books and documents into six parts : Yukrye(六藝), Cheja(諸子), Shibu(詩賦), Pyongsoh(兵書), Susul(數術), Pangki(方技). Under six parts, there were thirty eight orders in Hansoyemunji. To its own classification, Hansoyemunji applied the Chilyak's theory of classification that the books or documents were manag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sciences, the difference of schools, the organization of sentences. However the overlapped subjects were deleted and unified into one. The books included into an unsuitable subject were corrected and converted into another. The Hansoyemunji consisted of main preface (Taesoh 大序), minor preface (Sosoh 小序), the general preface (Chongso 總序). It also recorded the introduction of books and documents, the origin of sciences, the outline of sub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orders. The books classified by the subject had title, author, and volumes. They were rearranged by titles and the chronological publication year. Sometimes author was the first access point to catalogue the books. If it was necessary for the books to take footnotes, detail notes were formed. The Volume number written consecutively to order and subject could clarify the quantity of books.

2) Referring to Classification System by Seven Norms (七分法) and Classification System by Four Norms(四分法), Susokyongjeokji(隋書經籍志) had accomplished the classification by four norms. In fact, its classification largely imitated Wanhyosoh(阮孝緒)'s Chilrok(七錄), Susokyongjeokji's system of classification consisted of four parts-Kyung(經), Sa(史), Cha(子), Chip(集). The four parts were divided into 40 orders. Its appendix was again divided into two parts, Buddhism and Taoism. Under the two parts



there were fifteen orders.

Totally Susokyongjeokji was made of six parts and fifty five orders. In comparison with Hansoyemunji(漢書藝文志), it clearly showed the conception of Kyung, Sa, Cha, Chip. Especially it deserved to be paid attention that Hansoyemunji laied history off Chunchu(春秋) and removed history to Sabu(史部). However Chabu(子部) put many contrary subjects such as Cheja(諸子), Kiye(技藝), Sulsu(術數), Sosol(小說) into the same boundary, which committed errors insufficient theoretical basis. Another demerit of Susokyongjeokji was that it dealt with Taiosm scriptures and Buddhism scriptures at the appendix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as quasi-religion. Its compilation of bibliographical facts consisted of main preface(Taesoh 大序), minor preface(Sosoh 小序), general preface (Chongsoh 總序), postscript (Husoh 後序). Its bibliological facts mainly focused on the titles. Its recorded authors' birth date and their position. It wrote the lost and existence of books consecutive to total number of books, which revealed total of the lost books in Su Dynasty.

3) Modelling on the basis of Kokumsorok(古今書錄) and Naewaekyongrok(內外經錄), Kudangsokyongjeokji(舊唐書經籍志) had four parts and forty five orders. It was estimated as the important role of establishing basic frame of classification by four norms in classification theory's history. However it had also its own limit. Editing and compling orders of Kudangsokyongjeokji had been not progressively changed. Its orders imitated by and large Susokyongjeokji. In Its system of organizing catalogue, with its minor preface and general preface deleting, Kudangsokyongjeokji by titles after orders sometimes broke out confusion because of unclear boundaries between orders.

4) Shindangsoyemunji(新唐書藝文志), adding 28,469 books to Kudangso-

kyongjeokji, recorded 82,384 books which were divided by four parts and forty four orders. In comparison with Kudangkyongjeokj, Sindangsoyemunji corrected unclear order's norm. It merged the analogical norms four orders(for instance, Kohun 詰訓 and Sohakryu 小學類) and seperated the different norms four orders (for example, Hyokyong 孝經 and Noneuhryu 論語類, Chamwi 讖緯 and Kyonghaeryu 經解類, Pyonryon 編年 and Wisaryu 僞史類). Recording kings' behaviors and speeches (Kikochuryu 起居注類) in the historical parts induced the concept of specification category. For the first time, part of Chipbu (集部) set up the the order of classification norm for historical and literatural books and documents (Munsaryu 文史類). Its editing and compiling had been more simplified than Kudangsokkyongjeokji. Introduction was written at first part of bibliographies. Appendants except bibliographic items such subject, author, title, volume number, total were omitted.

5) Songsayemunji(宋史藝文志) were edited in the basis of combining Puksong(北宋) and Namsong(南宋), depending on Sabukuksayemunji(四部國史藝文志). Generally Songsayemunji had lost a lot of bibliographical facts of many books. They were duplicated and wrongly classified books because it committed an error of the incorrectly annalistic editing. Particularly Namsong showed more open these defaults. Songsayemunji didn't include the books published since the king Youngchong(寧宗). Its system of classification was more better controlled.

Chamwiryu(讖緯類) in the part of Kyongbu(經部) was omitted. In the part of history(Sabu 史部), recordings of kings' behaviors and speeches more merged in the annals. Historical abstract documents (Sachoryu 史鈔類) were seperately arranged. In the part of Chabu(子部), Myongdang kyongmaekryu(明堂經脈類) and Euisulryu(醫術類) were combined. Ohangryu(五行類) were laied off Shikuryu(著龜類). In the part of Chipbu(集部),

historical and literatural books (Munsaryu 文史類) were independently arranged. There were the renamed orders : from Wisa(僞史) to Paesa(霸史), Chapsa (雜史) to Pyolsa (別史), Chapchonki(雜傳記) to Chonki(傳記), Ryusoh(類書) to Ryusa(類事).

Introduction had only main preface. The books of each subject catalogued by title, the volume number, and author and arranged mainly by authors. Annotations were written consecutively after title and the volume number. In the afternote the number of not-treated books were revealed. Difference from Singdangsohyemunji(新唐書藝文志) were that the concept and boundary of orders became more clearer. It also wrote the number of books consecutive to main subject.

6) Modelling on Chonkyongdangsomok(千頃堂書目), Myongsayemunji(明史藝文志) was compiled in the basis of books and documents published in the Ming Danasty. In classification system, Myongsayemunji partly merged and the seperated some orders for it. It also deleted and renamed some of orders. In case of necessity, combining of orders' norm was occured particularly in the part of Sabu(史部) and Chabu(子部). Therefore these merging of orders norm didn't offer sufficient theretical background. For example, such demerits were seen in the case that historical books edited by annals were combined with official historical ones which were differently compiled and edited from the former. In the part of Chabu(子部), it broke out another confusion that Pubga (法家), Meongga(名家), Mukga(墨家), Chonghweongka's(縱橫家) thoughts were classified in the Chapka(雜家). Scriptures of Taosim and Buddhism were seperated from each other. There were some deleted books such as Mokrokryu(目錄類), Paesaryu(霸史類) in the part of history (Sabu 史部) and Chosaryu(楚辭類) in the part of Chipbu(集部). The some in the each orders had been renamed. Imitating compiling system of Songsayemunji(宋史藝文志), with referring to its differ-

ence, Myongsayemunji(明史藝文志) wrote the review and the change of the books by author. The number of not-treated books didn't appear at the total. It also deleted the total following main subject.